
II . 복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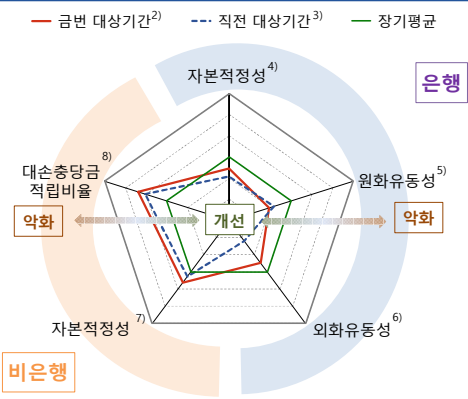
1. 금융기관	73
2. 대외지급능력	90
3. 금융시장인프라	93

1. 금융기관

은행¹⁾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과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손준비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도 모든 은행에서 감독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업권에서 고정 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자본적정성은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1-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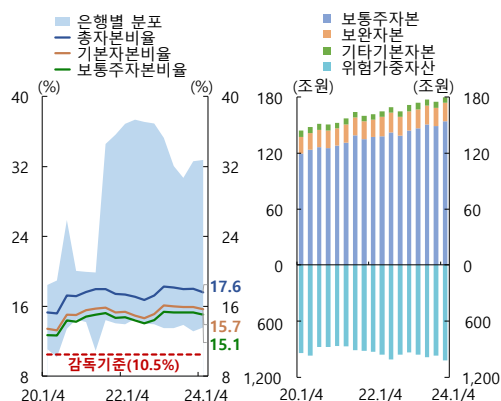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4년 1/4분기말(원화 및 외화유동성은 24년 4월말, 비은행 중 보험회사의 자본비율은 23년 4/4분기말)
3) 2023년 3/4분기말 4) BIS 기준 총자본비율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6) 외화 LCR
7) 비은행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8) 비은행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1) 은행

손실흡수능력 양호한 수준 유지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4년 1/4분기말²⁾ 각각 17.6%, 15.1%로 2023년 3/4분기말(18.0%, 15.3%)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일회성 손실(ELS 배상금 등)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10.5%, D-SIB³⁾ 11.5%)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I-1-2).

그림 II-1-2. 일반은행¹⁾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²⁾³⁾⁴⁾ 및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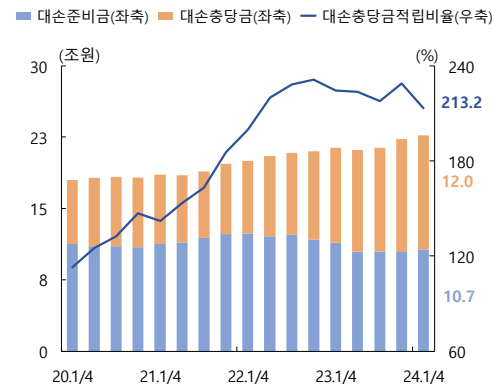
주: 1) 2024년 1/4분기부터 토스뱅크 포함
2) 기말 기준
3) 2024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4) 24.5월 이후 경기대응유동충자본(1%)이 규제기준에 추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 금융안전보고서의 은행 부문은 일반은행(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토스뱅크의 경우 2024년 1/4분기부터 바젤III 기준이 적용되었다.
3) 2024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4년 1/4분기말 213.2%로 지난해 3/4분기말(217.7%) 대비 4.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연체율 상승 등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1.1조원)하였으나 고정이하여신도 증가(+0.6조원)한 데 기인한다.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은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⁴⁾ 등으로 2024년 1/4분기말 10.7조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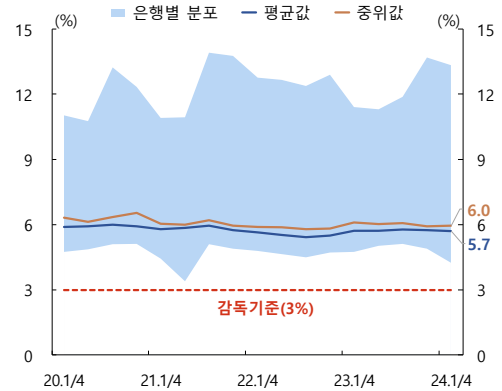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⁵⁾은 2024년 1/4분기말 5.7%로 지난해 3/4분기말(5.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3%)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I-1-4).

그림 II-1-3. 일반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²⁾



주: 1) 기말 기준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I-1-4. 일반은행¹⁾ 단순기본자본비율²⁾



주: 1) 2024년 1/4분기부터 토스뱅크 포함
 2) 기본지본(보통주지분+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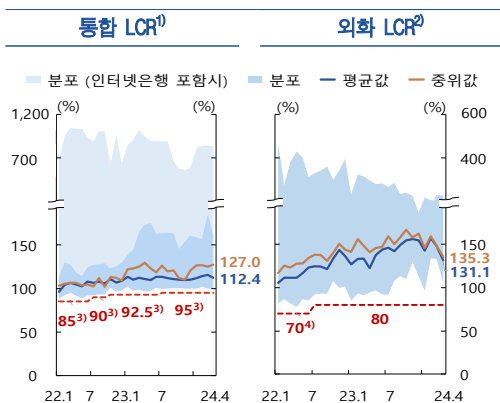
4) 대손준비금은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에 더해 감독규정상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제도로, 현행 기업여신의 경우 최저적립률은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11월 금융감독당국은 경기상황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감독규정화 하였다.

5)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은행 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유동성 대응능력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4년 4월중 112.4%로 지난해 9월(110.9%) 대비 1.6%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LCR 규제 정상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국채 매입⁷⁾을 확대함에 따라 고유동성자산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대부분 은행에서 규제 완화 전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다.⁸⁾ 외화유동성 대응여력을 나타내는 외화 LCR⁹⁾은 2024년 4월중 131.1%로 지난해 9월(149.1%) 대비 18.0%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타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감소에 따른 순현금유출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I-1-5).

그림 II-1-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주: 1) 고유동성자산(월 평균)/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고유동성 외화자산(월 평균)/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3) 2020년 4월-2022년 6월중 85%, 7-9월 90%, 10월-2023년 6월 92.5%, 2023년 7월-2024년 6월중 95%를 적용
4)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¹⁰⁾(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4년 1/4분기말 117.2%로 개별 은행 모두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 (표 II-1-1).

표 II-1-1. 일반은행¹⁾ NSFR²⁾³⁾

	2022년			2023년			2024년
	2/4	3/4	4/4	1/4	2/4	3/4	4/4
평균	108.2	108.2	111.9	112.2	114.6	114.5	116.2
중위값	107.7	106.6	109.7	108.6	111.6	111.3	1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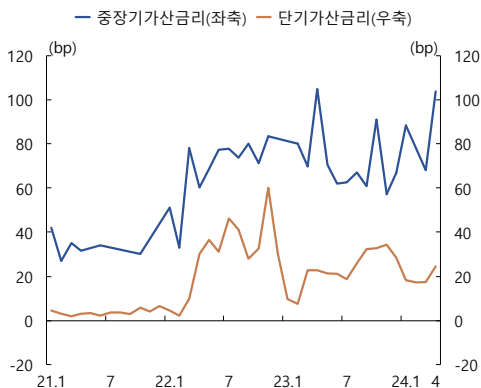
주: 1) 2024년 1/4분기부터 토스뱅크 포함
2)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3)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계산되며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은 월중 평균 기준이다.
- 일반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2023년 9월 119.0조원에서 2024년 4월 134.6조원으로 약 15.6조원 증가하였다.
-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감독기준은 2024년 6월까지 95%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동 규제비율을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97.5%로 상향하고, 최종 정상화 여부는 올해 4/4분기중 결정하기로 하였다.
- 외화 LCR은 바젤 III 규제는 아니나 은행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규제기준 월 평균 80%).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 NSFR은 은행들의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기 위해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토록 규제한다.

대외 외화조달 여건 대체로 양호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금년 들어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의 경우 2024년 4월중 상승폭이 비교적 컸으나 이는 주로 은행의 차입만기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I-1-6).

그림 II-1-6.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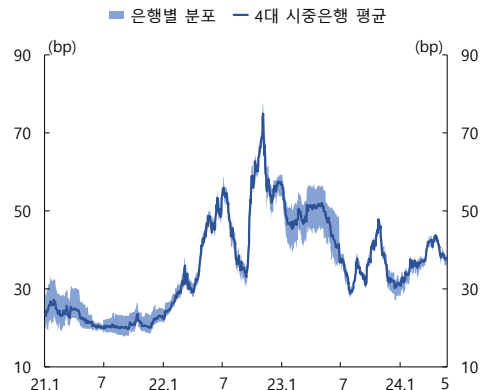
주: 1) 2022년 3월 이전은 LIBOR 기준 가산금리, 2022년 4월 이후는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2024년 1월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23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4월에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하였다(그림 II-1-7).

그림 II-1-7. 일반은행¹⁾ CDS 프리미엄²⁾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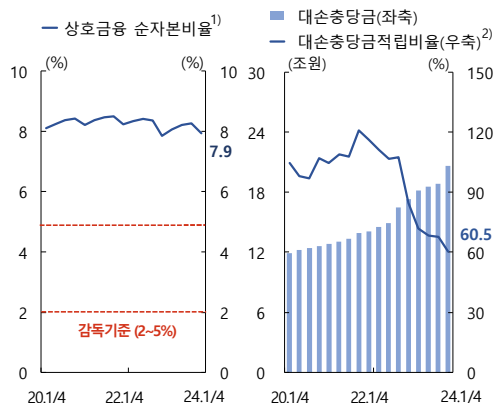
(2) 비은행금융기관

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손실흡수력 소폭 저하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¹⁾은 2024년 1/4분기말 7.9%로 2023년 3/4분기말(8.2%)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본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¹²⁾/고정이하여신¹³⁾도 고정이하여신이 크게 증가¹³⁾하면서 같은 기간 68.3%에서 60.5%로 7.8%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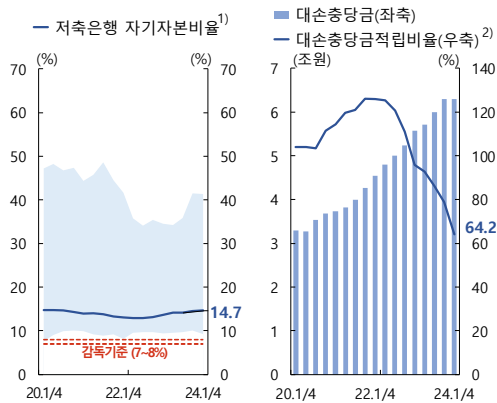
그림 II-1-8. 상호금융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농협 5%, 수협·신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14.7%로 2023년 3/4분기말(14.1%)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등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¹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고정이하여신이 대손충당금¹⁵⁾ 추가 적립액(+0.7조원)에 비해 큰 폭 증가(+3.5조원)하면서 2023년 3/4분기말 86.3%에서 2024년 1/4분기말 64.2%로 22.1%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1-9).

그림 II-1-9.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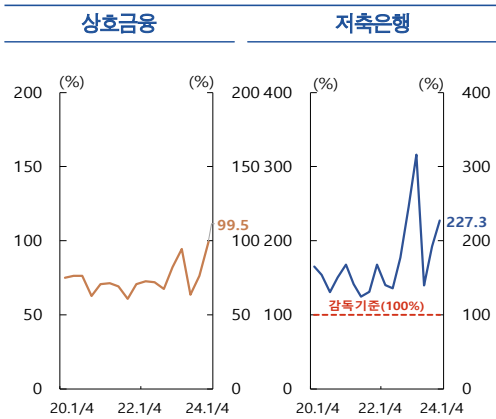
주: 1)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음영은 개별 저축은행 분포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1) (총자산-총부채-출자금+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총자산+대손충당금)×100 으로 계산되며,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현금에 보장된 출자금에 한한다.
1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대손충당금 잔액/실정대상자산(대출채권 등)에 대한 요적립액)은 2024년 1/4분기말 116.8%(새마을금고 제외)로 감독기준(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13) 상호금융의 2024년 1/4분기말 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3/4분기말 대비 25.6%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11.2% 증가하여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다.
14) 저축은행은 2023년 3/4분기말 대비 2024년 1/4분기말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이 각각 0.7조원(-4.3%) 및 8.9조원(-7.8%) 감소하였다.
1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율(대손충당금 잔액/실정대상자산(대출채권 등)에 대한 요적립액)은 2024년 1/4분기말 113.2%로 감독기준(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유동성 대응능력 개선

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99.5%로 2023년 3/4분기말(63.6%) 대비 35.9%포인트 상승하였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2024년 1/4분기말 227.3%)도 2023년 3/4분기말 139.3%에서 88.0%포인트 상승하여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의 유동성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2022년 4/4분기중 크게 늘어났던 예금중 상당부분이 2023년 4/4분기중 만기도래하면서 유동성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¹⁶⁾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II-1-10).

그림 II-1-10.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비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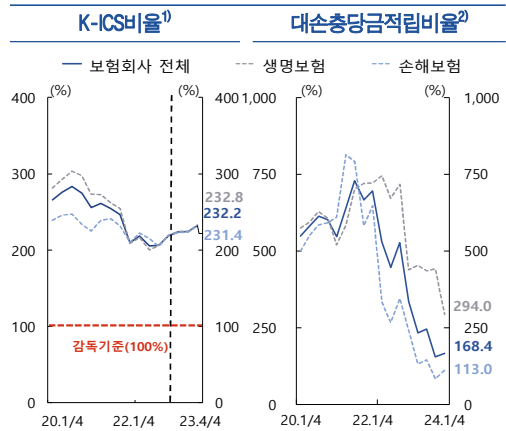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2)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제40조의4)에 따른 규제비율 100% 적용, 상호금융은 경영실태평가 반영지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나.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대체로 양호

2023년부터 도입된 보험회사의 신 지급여력비율인 K-ICS비율¹⁾(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은 지난해에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인 가운데 2023년 말¹⁸⁾에는 232.2%로 높아졌다.¹⁹⁾ 반면 보험회사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168.4%로 동 분기중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 3/4분기말 대비 77.7%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1-11).

그림 II-1-11. 보험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2022년말까지는 RBC비율, 2023년부터는 K-ICS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6) 상호금융의 유동성부채는 2024년 1/4분기말 228.1조원으로 2023년 3/4분기말(317.8조원) 대비 28.2% 감소하였으며 저축은행의 유동성부채도 2024년 1/4분기말 14.0조원으로 2023년 3/4분기말(30.7조원) 대비 54.5% 감소하였다.

17)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신뢰계제도(IFRS17 및 IFRS9)가 도입되면서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었다. K-ICS 하에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통한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정시 신규 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추가, 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조정(99% → 99.5%),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위험계수 방식 → 충격시나리오 방식) 등 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최대 10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현재 19개 보험회사(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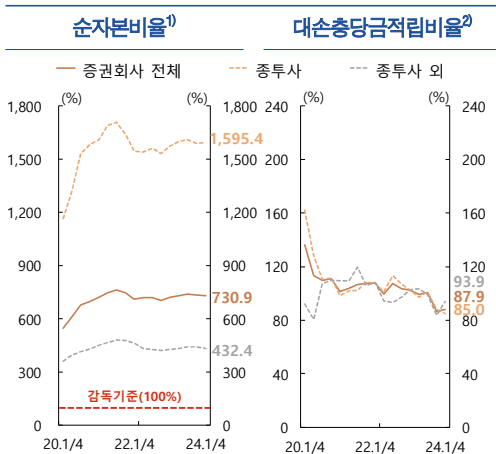
18)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 관련 공시 기한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종료후 3개월(연결산의 경우 4개월)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2023년말 기준이다.

19) 대량 해지위험액의 산출기준 변경(2023년 12월부터 적용)으로 요구자본과 관련된 해지위험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종전에는 보험계약의 30%가 일시에 해지된다는 가정이었으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은 35%, 보장성보험은 25%가 일시에 대량 해지된다는 가정하에 순자산가치 감소분을 산출하게 되었다.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730.9%로 중투자(1,595.4%)와 중투자 외 여타 증권회사(432.4%) 모두 2023년 3/4분기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87.9%로 2023년 3/4분기말(100.5%) 대비 하락하였다. 이는 부동산PF 관련 신용손실에 대비한 자산건전성 재분류²⁰⁾ 등으로 2023년 4/4분기중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확대된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그림 II-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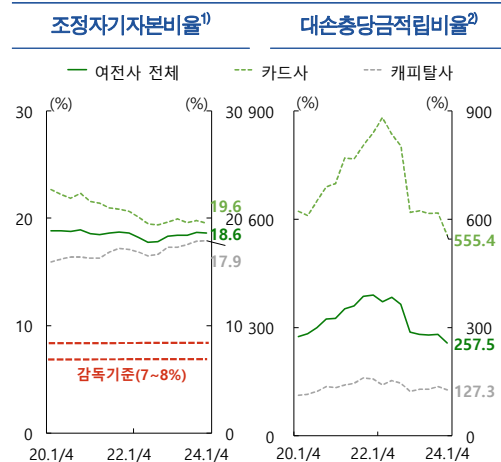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18.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²¹⁾ 모두 고정이하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 3/4분기말 280.8%에서 2024년 1/4분기말 257.5%로 하락하였다(그림 II-1-13).

그림 II-1-12. 증권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자산(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1-13.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0) 증권회사가 PF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 등으로 재분류하면서 2023년 4/4분기중 1.6조원 규모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을 추가 적립하였다. 이는 2023년 1/4-3/4분기중 대손충당금 적립규모(1.1조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부동산PF 관련 자산 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 각각 30%, 75% 및 100%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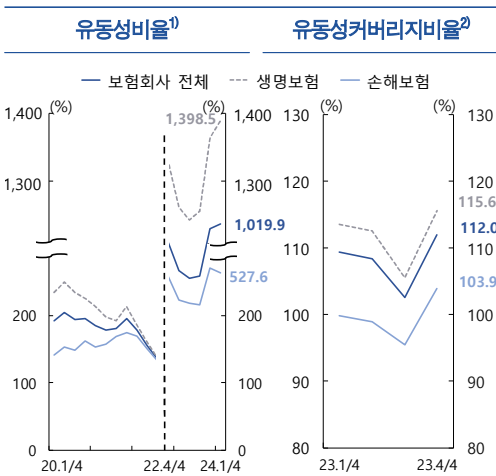
21) 한편, 2024년 1/4분기말 캐피탈사는 충당금 적립규모가 요적립액을 크게 상회(요적립액의 1.4배)하면서 신용카드사(2023년 3/4분기말 대비 -61.2%포인트)에 비해 소폭 하락(-2.0%포인트)하였다.

유동성 대응능력 업권별 상이

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²⁾은 2024년 1/4분기말 1,019.9%로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 편입이 늘면서 2023년 3/4분기말 대비 235.6%포인트 상승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²⁾은 그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4/4분기말에는 112.0%로 상승 전환하였다²⁴⁾(그림 II-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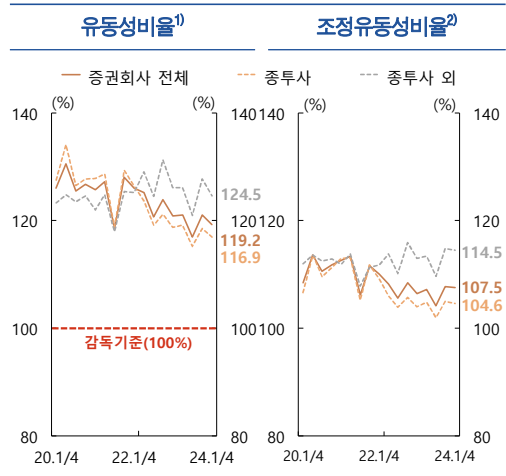
증권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119.2% 수준으로 2023년 4/4분기말 반등²⁵⁾하였다가 소폭 하락하였다. 우발부채인 채무보증까지 고려한 조정유동성비율²⁶⁾의 경우 2024년 1/4분기말 107.5%로 예년 평균(20년 1/4분기~23년 4/4분기중 109.1%)을 소폭 하회하였다(그림 II-1-15).

그림 II-1-14. 보험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2) 스트레스 상황시 가용유동성/조달필요금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1-15. 증권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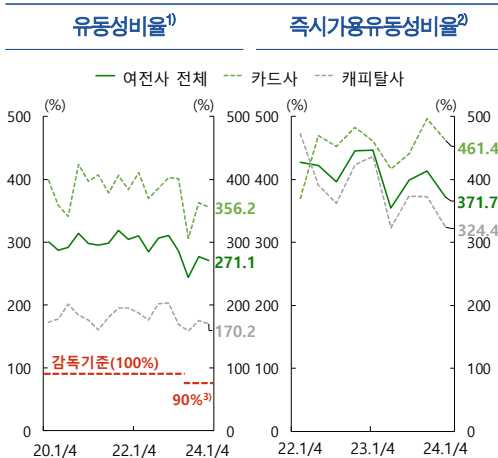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2)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채무보증)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22)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만기 3개월 이하 자산 →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및 활성화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함에 따라 2022년 4/4분기 이후 유동성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 23) 감독당국은 기존 유동성비율의 단점(지급보험금만으로 필요 유동성을 산출하고 유동성자산의 현금화 가능 정도를 미고려)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별 유동화(현금화) 가능 정도 및 지급보험금 이외 부채에 대해서도 필요 유동성 정도를 반영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3년부터 신규 도입하였다.
- 24) 2023년 1/4-3/4분기까지는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지급과 장기차입금의 만기도래 영향이 반영되어 유동성 조달 필요금액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 기간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4/4분기에는 국공채 등 가용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동 비율이 상승하였다.
- 25)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ELB(Equity Linked Bond)의 만기(통상 1년)가 매년 4/4분기에 집중됨에 따라 전분기인 3/4분기에는 ELB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로 들어오면서 유동성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3/4분기마다 유동성비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가 이후 재반등하는 계절성을 나타낸다.
- 26) 다만, 동 지표는 경영실태평가시 계량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규제비율(100%)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 분기말 기준 271.1%로 2023년 3/4분기말(243.5%) 대비 상승²⁷⁾하였다. 이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기업어음(CP), 차입금 등의 규모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1개월내 유동성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²⁸⁾은 371.7%로 캐피탈채의 1개월내 만기도래 규모 증가 등으로 2023년 3/4분기말(398.3%)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1-16).

그림 II-1-16.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 즉시가용유동성자산/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3) 2022년 12월-2024년 12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7) 다만, 2021-22년중 발행을 확대한 만기 2년 이상 CP의 만기도래가 2024년 2/4분기중에 집중되면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CP 규모가 2023년 4/4분기말 4.3조원에서 2024년 1/4분기말 6.7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분기말 대비로는 소폭(-5.7%포인트) 하락하였다.

28) 감독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20년 2월)하면서 2022년부터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도입하였다.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은 즉시가용유동성자산(현금 및 예치금,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한도 합계)을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로 나누어 계산한다.

참고 6.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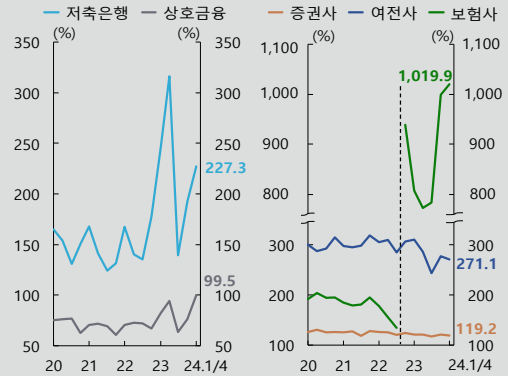
금융시장에서의 높은 금리수준 지속²⁾,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가능성³⁾에 대비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말 기준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현황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분기에 상승⁴⁾하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은행과의 예금금리 격차가 축소 또는 역전⁵⁾되면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으나 유동성부채 감소⁶⁾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4분기 기준 227.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은 99.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⁷⁾

증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비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⁸⁾하였다. 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은 22년 3/4분기중 134.2%까지 하락하였으나, 2022년말 감독당국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⁹⁾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참고 6-1).

참고 6-1.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비율¹⁾



주: 1)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혹은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시나리오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상황에서 예금인출, 채무상환 등으로 단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유출 예상액(3개월 기준)과 대출 만기도래, 자산매각 등

- 1) 본고는 김민수·이병호·김동녕(시스템리스크팀)이 작성, 이종한(금융시스템분석부장)·최병오(시스템리스크팀장)가 검토하였다.
- 2) 금리(3년만기 국고채 기준)는 2021년 1.39%(연평균)이었으나,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 3.20%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3.57%로 상승하였다.
- 3) 2022년 하반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금융안전보고서 <참고5>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 4) 저축은행 : 23.4/4 192.1% → 24.1/4 227.3%, 상호금융 : 76.2% → 99.5%
- 5) 저축은행과 은행, 상호금융과 은행의 수신금리(1년 정기예금 및 정기예탁금 기준) 격차는 20년 0.77%p, 0.16%p, 21년 0.85%p, 0.05%p, 22년 0.5%p, -0.04%p, 23.3/4분기에는 0.13%p, -0.05%p로 축소 내지 역전되었다.
- 6) 2022년 4/4분기중 크게 늘어났던 예금 상당 부분의 만기가 2023년 하반기 중에 도래하면서 기존 예금의 중도해지 및 재예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 만기가 늘어나고 유동성부채가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전 상황점검 보도자료(2024년 3월, 1.2장)를 참조하기 바란다.
- 7) 정부의 상호금융감독규정 및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으로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가 시행될 계획이므로 유동성비율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8) 증권사 : 23.4/4 121.0% → 24.1/4 119.2%, 여전사 : 276.7% → 271.1%
- 9)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으로 한정되었던 보험사의 유동성자산에 '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을 통해 유입가능한 현금확보액(3개월 기준)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금유출예상액(o) 대비 현금확보가능액(i) 비율인 유동성확보비율(lr)을 비은행금융기관 각 업권별로 산출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

$$\begin{aligned} \text{현금확보가능액 } I &= \sum_i A_i(1-l_i) \\ \text{현금유출예상액 } O &= \sum_j L_j r_j \\ \text{유동성확보비율 } lr &= \frac{I}{O} = \frac{\sum_i A_i(1-l_i)}{\sum_j L_j r_j}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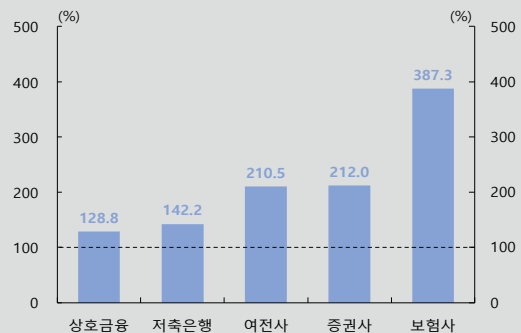
A_i : i 번째 자산, l_i : A_i 의 매각손실률,
 L_j : j 번째 부채, r_j : L_j 의 유출률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과거 위기시 발생한 예금인출 규모를 적용하여 현금유출예상액을 추정하였다.¹⁰⁾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중 회수가능한 현금을 시산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 한편,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규모를 추정¹¹⁾하여 현금유출예상액을 계산하였고, 보험사의 경우 직전 1년치 지급보험금¹²⁾이 단기에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현금확보가능액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매각시 손실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여전사의 경우는 위기시 자산 유동화 규모를 추정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¹³⁾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비율을 추정한 결과 전 업권이 100% 이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3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권 및 여전사가 각각 212.0%, 210.5%,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이 각각 142.2%, 128.8% 순으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보험 및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시 가용할 수 있는 시장성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의 경우도 카드 자산, 할부금융자산 등 유동화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확보비율이 20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인 데다 이중 상당부분이 장기로 운용됨에 따라 단기에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증권·보험·여전사에 비해 유동성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6-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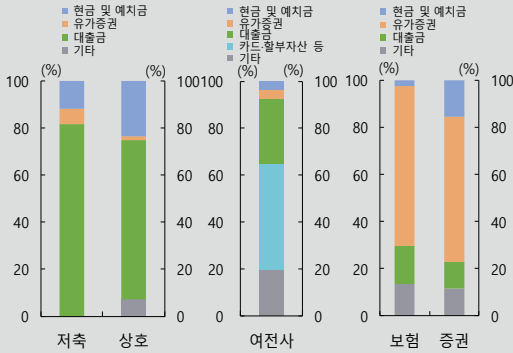
참고 6-2.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확보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

- 10) 2011년 저축은행 사태시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례를 참고하여 예금 금액대별로 5천만원 이하 예금은 20%,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0%의 유출률을 적용하였다. 다만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비조합원 예금에 대해서만 유출률을 적용하였다.
- 11)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9)를 참고하여 만기도래 채무의 차환율을 65%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 12) 과거 유동성 위기 사례가 없었던 보험사의 경우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가 3개월치 지급보험금의 유출을 상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가정을 설정하였다. 지급보험금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 13) 증권사 및 보험사의 보유자산 매각손실률은 바젤3의 LCR 규제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데이터(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October 2008) 등을 참고하여 자산별로 차등 적용하였다(국공채 0%, 금융채 15%, 주식 20%, 회사채 40% 등). 여전사의 경우 2003년 카드사태시 단기 자산유동화 실적(유동화 대상 자산의 10%)을 참고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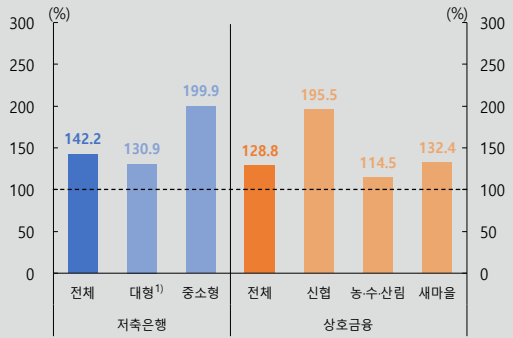
참고 6-3. 비은행금융기관 자산구성¹⁾



주: 1) 2024년 1/4분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각 업권의 세부 기관별 유동성확보비율을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별로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유동성확보 비율(199.9%)이 대형 저축은행(13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은 업권별로 신탁(195.5%), 새마을금고(132.4%), 농·수·산림조합(114.5%) 순으로 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⁴⁾(참고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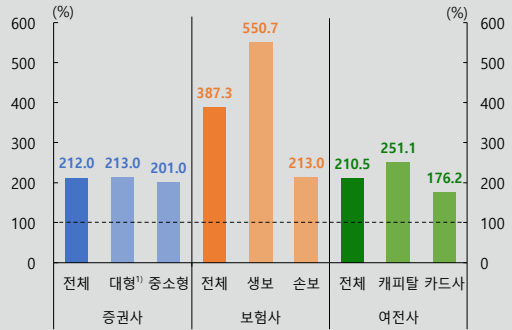
참고 6-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확보비율



주: 1) 자산 1조원 이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

증권사의 경우 현금확보가 용이한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사(종합금융투자사사업자 포함)의 유동성 확보비율이 213.0%로 중소형사(201.0%)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¹⁵⁾ 보험사의 유동성확보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0.7%로 손해보험사(21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유동화가 용이하고 매각 손실이 낮은 국공채 및 특수채가 유동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⁶⁾ 여전사의 경우 차환리스크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¹⁷⁾ 캐피탈사의 유동성확보비율이 251.1%로 카드사(17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참고 6-5).

참고 6-5. 증권·보험·여신전문회사 유동성확보비율



주: 1)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시산

14) 예수부채 대비 자산 비중(잔존만기 3개월 이내)을 시산해보면 저축은행 131%, 신탁 103%, 농·수협 및 산림협동조합이 73%로, 농·수협 및 산림협동조합이 타 기관대비 상대적으로 만기불일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형의 예수부채 대비 자산 비중(잔존만기 3개월 이내)이 184.8%로 대형(122.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 대형 증권사의 유동화자산비중은 48.7%,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화자산비중은 35.8%이다.
16) 유동자산중 국공채 및 특수채 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35.9%, 손해보험사의 경우 25.3%이다.
17) 캐피탈사의 경우 유동부채 비율이 12.2%로 카드사(1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평가 및 시사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모든 업권에서 현금확보 가
능액이 현금유출액을 초과하여 유동성 상황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확보비율이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증권·보험·여전사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동성 대
응능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예금취급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운
용의 만기불일치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유동성 리
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
영하여 정부는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
성비율 규제를 도입¹⁸⁾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
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
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을 점검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비상
자금 조달계획을 점검하고, 유동성 점검 지표 대상
범위 확대, 정교한 유동성 상황점검 지표 개발 등
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또한 금융기관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¹⁹⁾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및 모형의
정합성 제고 등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정
교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18) 정부는 상호금융감독규정, 새마을금고감독기준을 개정하여 유동성비율 규제(3개월 유동성비율 100%이상)를 금년말(새마을금고
는 2025년 1월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100% 이상,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유동성 규제 비율을 차등적용하되 1,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시
행후 1년까지는 90%를 적용할 예정이다.

19) 금융계열사, 타금융기관 등과의 Credit Line(당좌대출약정) 개설을 통해 가용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7.

주요국의 바젤Ⅲ 최종안 도입 현황 및 시사점¹⁾

바젤은행감독위원회²⁾(BCBS)가 2017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최종안(잔여규제 개혁안)의 이행시기³⁾(2023년 1월)가 지난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이미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시행 중이나 글로벌 은행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국이 마련 중인 바젤Ⅲ 도입안의 세부 내용과 그 파급영향에 대해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바젤Ⅲ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현황과 시사점을 점검하였다.

바젤Ⅲ 최종안의 주요 내용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규제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바젤Ⅲ 최종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간 규제자본비율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바젤Ⅱ 신용리스크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의 위험가중치를 자산별 위험수준에 따라 세분화⁴⁾하여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은행의 차주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표준방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공시의무도 추가되었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⁵⁾

글로벌 은행이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적용 시 모수값을 과소 추정함에 따라 국가 및 은행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모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특정 익스포저(주식, 대기업·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인 자산)에 대해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고, 모수값(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의 과소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input floor)을 설정하였다.

신용가치조정 리스크⁶⁾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Credit Valuation Adjustment) 리스크 측정 시 내부모형법 사용을 불허하고 표준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금리, 외환 등 시장리스크 요소별로 구분하여 CVA 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리스크 민감도를 높였다. 다만, 비중양청산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명목가액 1,000억유로 이하인 경우 간편법을 적용하여 CVA 리스크를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본고는 이소윤·현소연·조은정·이종석(글로벌금융규제팀)이 작성, 이종한(금융시스템분석부장)·정연수(글로벌금융규제팀장)가 검토하였다.
2) BCBS의 상위 통할기구인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가 2010년 9월 바젤Ⅲ 1단계 개혁안(initial phase of Basel III reforms: 보통주자본 중심의 규제자본 개편, 완충자본·거액익스포저 규제·레버리지비율·유동성 기준·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도입 등)을 승인한 데 이어 2017년 12월에는 바젤Ⅲ 최종안(finalised Basel III reforms)을 승인하였다(「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는 2016년 1월에 발표한 후 2019년 1월에 수정안을 발표).
3) GHOS는 바젤Ⅲ 최종안의 이행시기를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였다.
4) 예를 들어, 은행 및 기업 익스포저의 경우 리스크 범주를 이전보다 세분화하여 고위험자산에 대해 바젤Ⅱ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담보 익스포저는 LTV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20~70%)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5) 리스크 범주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단순 적용하는 표준방법과 달리 은행이 자체 데이터와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를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6)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에 따른 평가손실 위험을 의미한다.

운영리스크⁷⁾ 규제체계

기존 운영리스크 표준방법을 새로운 표준방법으로 대체하고 내부모형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새로운 표준방법은 운영리스크 관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규모 측정치(business indicator component) 외에 손실사건 누적규모(loss component)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토록 하였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총익스포저(분모) 항목의 산출방식을 일부 수정⁸⁾한 가운데,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에 대해서는 G-SIB 추가 자본의 50%를 레버리지비율 추가 자본⁹⁾(기본 자본)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자본하한

내부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의 과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고 국가 및 은행간 산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하한(output floor)을 강화하였다. 내부모형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표준방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의 72.5%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¹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장리스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을 명

확히 하여 은행의 규제차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내부모형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표준방법의 리스크 민감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의 부도리스크 등을 반영하였다(참고 7-1).

참고 7-1. 바젤III 규제체계 개요

분자: 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보통주자본 중심의 규제자본 개편
	완충자본
	G-SIB 추가자본 규제
분모: 위험가중자산 (risk-weighted assets)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표준방법 강화
	내부모형 사용 제한
	자본하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산출기준 수정
거액익스포저 규제	
유동성 기준	
G-SIB 레버리지비율 규제	
주 : 바젤III 1단계 개혁안(10년 9월 발표) 바젤III 최종안(17년 12월 발표)	

주요국의 바젤III 도입 현황

BCBS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일본, 한국¹¹⁾ 등 6개¹²⁾국이 바젤III 최종안의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은 2025년중 시행을 목표로 현재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2023년 7월 자국의 바젤III 규제안(Basel III endgame proposal)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미 바젤III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대상 은행기준을 총자산 1,000억달러로

7) 내부직원 행위, 상품 하자, 시스템 장애, 기타 외부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운영상의 모든 측정 가능한 손실과 관련된 위험이다.
8) 난외자산 및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방식(중요은행 지급준비금 제외, 공정가치로 평가되며 증권대금 동시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수금 등의 상계 허용 등)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9) G-SIB은 시스템적 중요도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1.0%-3.5%의 추가 자본규제(보통주자본)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현재 2%의 추가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G-SIB의 경우 추가 자본의 50%인 1%의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적용되어 레버리지비율은 총 4% 이상(기본 레버리지비율 3% + 추가 1%)으로 유지해야 한다.
10) 2023년부터 5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8년에 72.5%에 도달하도록 설정하였다.
11) 우리나라는 2020년 6월말부터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체계를 조기 시행한 데 이어 자본하한은 2022년 11월, 운영 및 시장 리스크 산출체계·신용가치조정 리스크 규제체계는 2023년 1월,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2024년 2월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12) 2023년 11월 기준 BCBS 회원국(27개) 중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바젤III 최종안 도입을 완료하였다.

하향 조정(기준 총자산 2,500억달러 이상)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강화된 리스크 평가방식(Expanded Risk-Based Approach)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운영 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 사용 금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위험가중치 강화¹³⁾, 시장리스크 내부모형법 승인요건 강화, G-SIB¹⁴⁾ 및 완총자본 규제 강화¹⁵⁾ 등을 통해 바젤Ⅲ 기준에 비해 규제자본 부담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¹⁶⁾를 반영하여 2024년 중 규제내용을 확정하고, 2025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¹⁷⁾

유럽연합은 2021년 10월 바젤Ⅲ 규제안(The final el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Basel III)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유럽연합의 바젤Ⅲ 규제안은 적용대상이 국제영업 영위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며, 바젤Ⅲ 기준 대비 신용리스크의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규제를 일부 완화¹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금융기업과의 파생상품 거래 시 신용가치조정 리스크를 적용하지 않고, 무등급기업(unrated corporate), 저위험 모기지 익스포저 등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는 완화된 자본하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2023년 12월 바젤Ⅲ 기준의 이행(implementation of the Basel 3.1 standards)에 관한 정책성명서¹⁹⁾를 발표하였다. 영국 바젤Ⅲ 규제안은 신용리스크의 경우 무등급기업은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가중치²⁰⁾를 적용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도입하였다. 한편 연금펀드와 거래 시 신용가치조정 규제와 비금융기업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규제를 바젤Ⅲ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였다. 동 규제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4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30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참고 7-2, 7-3).

참고 7-2. 주요국 바젤Ⅲ 도입안 주요 특징

국가	규제	특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위험가중치 강화 내부등급법 사용금지
미국	신용가치조정	장외파생상품으로 적용범위 한정
	G-SIB 규제	G-SIB 대상 레버리지비율 강화
	자본보전완총자본	스트레스완총자본 2.5% 이상 적용
	적용범위	모든 은행에 바젤 기준 적용
유럽 연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및 내부등급법 일부 완화
	신용가치조정	비금융기업과 거래 시 적용 제외
	자본하한	일부 익스포저에 대해 2032년까지 완화
	신용리스크	무등급기업 익스포저에 대해 차등화된 위험가중치 적용
영국		상업용 부동산에 위험가중치 하한 도입
	신용가치조정	연금펀드와 거래 시 위험가중치 완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이 연금펀드와 비금융기업인 경우 익스포저 산출계수(a) 완화

자료: 미 연준, EBA, BoE 등

13) 주거용 부동산, 소매(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바젤Ⅲ 기준 대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강화하였다.

14) G-SIB에 대해서는 바젤Ⅲ 레버리지비율(3%, 일반은행 대상)보다 강화된 레버리지비율(5%)을 적용한다.

15) 바젤Ⅲ 기준은 자본보전완총자본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2.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 미 바젤Ⅲ 규제안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2.5% 이상을 적용한다.

16) 의견수렴 기간(23년 7월 27일~24년 1월 16일) 중 접수된 의견 대다수가 미국 바젤Ⅲ 최종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다만, 접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 마련, 추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18) 일부 중소기업과 공공인프라투자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를 규모 및 기타 적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젤 기준보다 완화하였다.

19) 동 성명서는 시장 및 운영 리스크, 신용가치조정,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 첫 번째 성명서이며, 두 번째 성명서는 신용리스크, 자본하한, 공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중 발표될 예정이다.

20) ① 바젤Ⅲ 기준에 따라 무등급기업에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② 투자적격 또는 투자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각 65%, 135%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 7-3. BCBS 회원국의 바젤Ⅲ 최종안 이행 현황¹⁾

■ 최종 규제안 이행 □ 이행 예정 □ 해당 없음

회원국	위험기반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CVA 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자본하한	총익스포저	G-SIB
미국	'25.7월	-	'25.7월	'25.7월	'25.7월	'25.7월	0	0
유럽연합	'25.1월	'25.1월	'25.1월	'25.1월	'25.1월	'25.1월	0	0
영국	'25.7월	'25.7월	'25.7월	'25.7월	'25.7월	'25.7월	0	0
일본	0	0	0	0	0	0	0	0
중국	0	0	0	0	0	0	0	0
한국	0	0	0	0	0	0	0	-

주: 1) 2023년 12월 기준
자료: BCBS 등

시사점

주요국이 진행 중인 바젤Ⅲ 도입 작업이 마무리되면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²⁾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은행간 규제자본비율의 산출편차도 축소되어 글로벌 은행간 복원력 및 리스크 현황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바젤 기준과 자국 규제안 간 차이(deviation)가 일부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BCBS의 규제 일관성 평가 프로그램(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me)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²²⁾

일부에서는 은행의 규제자본 부담 증가, 영업행태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2023년 은행 위기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젤Ⅲ의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 제고에 더욱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내 은행부문의 복원력과 함께 은행감독체계의 대외 신인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은행시스템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의 바젤Ⅲ 규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²³⁾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은행 위기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²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감독 측면의 대응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1) 바젤Ⅲ 최종안이 도입되면 유럽연합 및 영국은 규제대상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기본자본이 각각 약 10%, 3% 증가하고, 미국 은행들은 보통주자본 요구량이 약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EBA, BoE, 미 연준).

22) 바젤 기준은 최저규제기준이므로 동 기준보다 강화된(super-equivalent) 규제는 허용된다.

23) 일부 시장참가자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영업모델 변화에 따른 신흥국에 대한 신용 위축,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국가간 경쟁 여건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24) 비부보예금 및 특정 유형의 예금자 집중도 증가, 보유채권의 미실현 평가손실 확대, 기존 유동성 감독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동성 불일치 심화 등이 그 예이다.

2.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모습을 이 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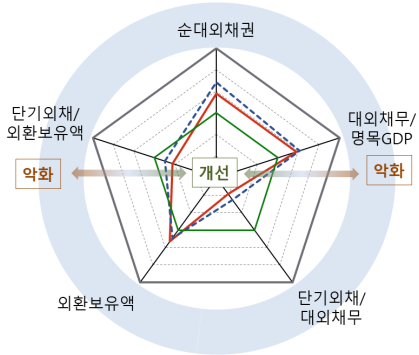
순대외채권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단기외 채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등의 대외건 전성지표가 개선되었다.

순대외채권 증가세 전환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4년 1/4분기말 3,846억달러로 전년도 3/4분 기말 대비 270억달러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속된 순대외채권의 감소세가 증 가로 전환되었다(그림 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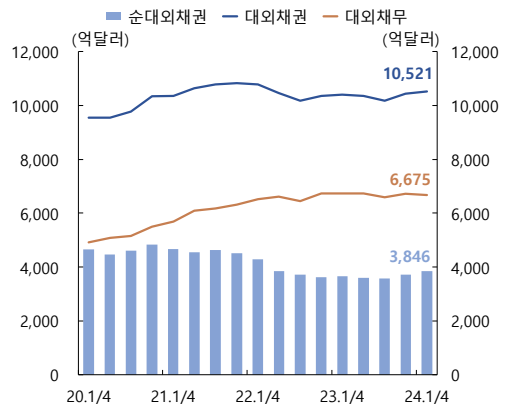
그림 II-2-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¹⁾

— 금번 대상기간²⁾ - - - 직전 대상기간³⁾ — 장기평균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4년 1/4분기말(외환보유액은 2024년 5월말)
3) 2023년 3/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2. 순대외채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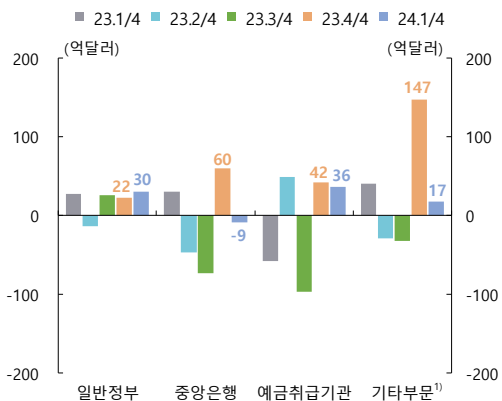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4년 1/4분기말 현재 1조 521억달 러로 전년도 3/4분기말 대비 346억달러 증가하 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와 중앙은행 은 해외증권투자 확대, 외환보유액 증가²⁹⁾ 등으 로 각각 53억달러 및 51억달러 증가하였다. 예 금취급기관은 78억달러 증가하였는데 국내은행 의 본지점대출과 외은지점의 해외예치금이 주로 늘었다. 기타 부문은 해외증권투자와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164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2-3).

29) 외환보유액은 2023년 9월말(3/4분기말) 이후 2024년 3월말(1/4분기말)까지 51.3억달러 증가하였으나, 4-5월중 64.2억달러 감소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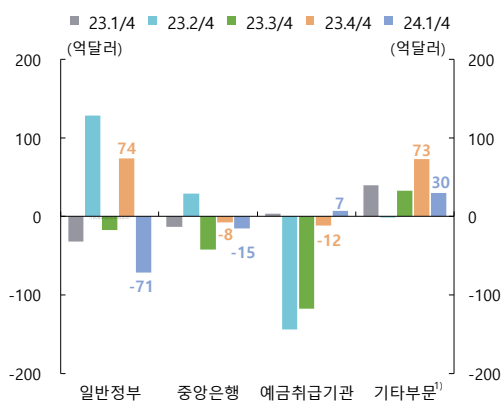
그림 II-2-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4년 1/4분기말 6,675억달러로 전년도 3/4분기 대비 77억달러 증가하였다. 기타부문이 해외증권발행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103억달러 증가하였고, 일반정부는 2억달러 증가하였다. 반면 중앙은행은 외국인의 통안증권 투자 축소 등으로 23억달러 감소하였고, 예금취급기관은 국내은행의 해외증권발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축소 등으로 5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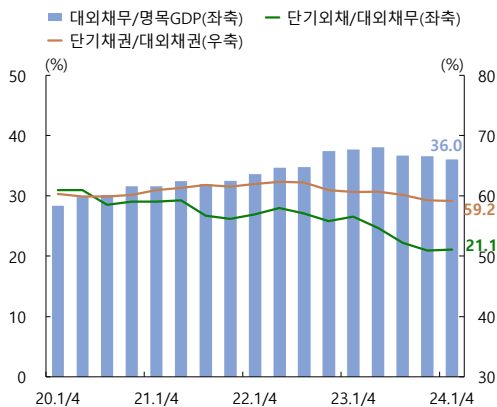
그림 II-2-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4년 1/4분기말 36.0%로 전년도 3/4분기(36.6%) 대비 하락하였다. 또한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1.1%로 전년도 3/4분기(22.1%) 대비 하락하였으며 대외채권중 단기채권 비중도 전년도 3/4분기(60.2%) 대비 하락하여 59.2%를 기록하였다(그림 II-2-5).

그림 II-2-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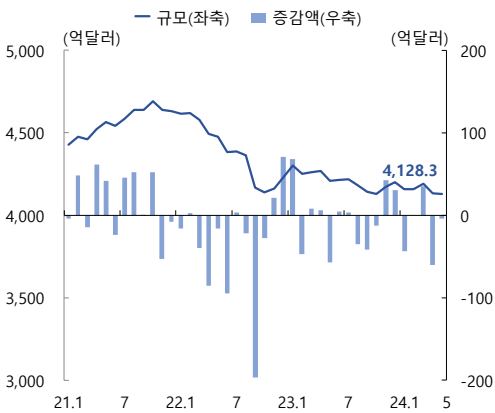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감소

2024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작년 11월말(4,170.8억달러) 대비 42.5억달러 감소한 4,128.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노력과 함께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결합한 데 기인한다(그림 II-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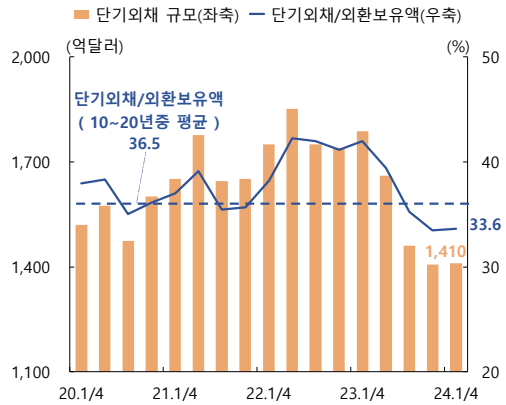
그림 II-2-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4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3.6%으로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2023년 3/4분기말(35.3%) 대비 1.6%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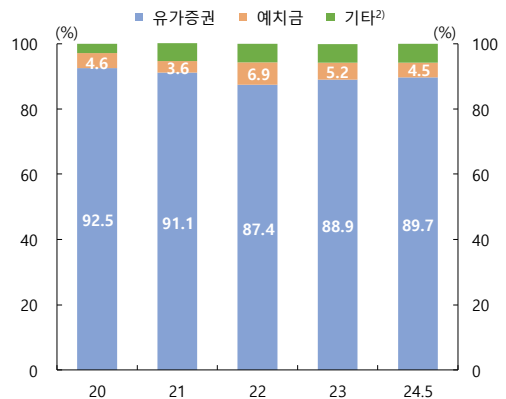
그림 II-2-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4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9.7%) 및 예치금(4.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2-8).

그림 II-2-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인프라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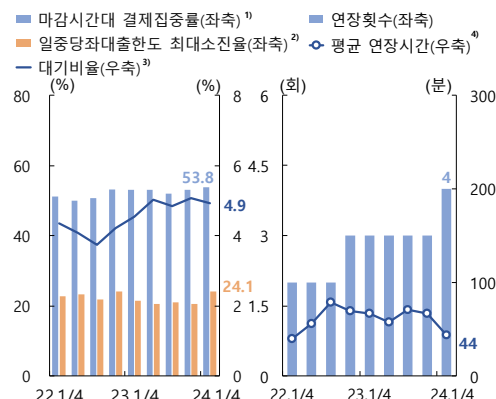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4년 1/4분기중 596.9조원으로 지난해(554.6조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4년 1/4분기중 각각 24.1%, 4.9%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1/4분기중 53.8%로 전년동기(53.0%)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은 2024년 1/4분기중 4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관련 업무처리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3-1).

그림 II-3-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및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 중 은행의 일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3)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되는 거래 제외)
 4)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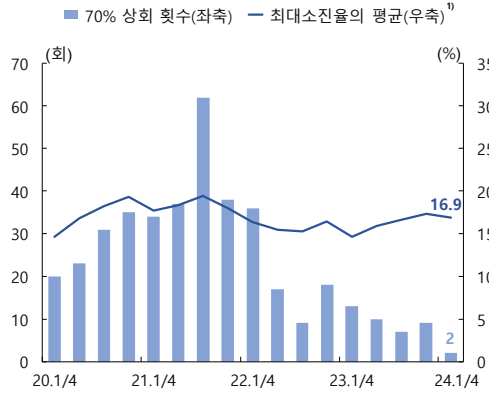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4년 1/4분기중 106.9조원으로 지난해(100.1조원)보다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³¹⁾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4분기중 2회로 전년 동기(13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은 2024년 1/4분기중 16.9%로 전년 동기(14.7%)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3-2).

30) 기업 또는 개인의 자금이체 지시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실시간 또는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명업일에 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31) 순이체한도는 참가기관이 전자금융공공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고객자금이체 순한도로서,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 전체에 초래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의 크기를 의미한다. 참가기관이 신규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면 동 한도가 소진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고객자금이체를 수취하면 동 한도가 복구된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사전 납입하도록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3-2.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 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4년 1/4분기중 306.0조원으로 기관 간 RP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68.3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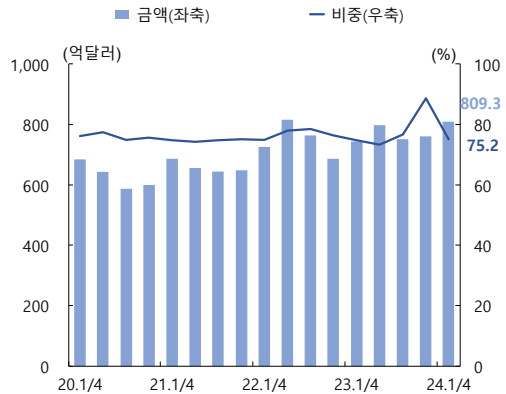
2024년 1/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

외환결제시스템³²⁾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³³⁾의 결제액은 2024년 1/4분기중 일평균 809.3억달러로 지난해(762.9억달러) 대비 증가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4년 1/4분기중 7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3-3).

그림 II-3-3.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32) 외환결제는 CLS시스템,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33)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 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 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